

6년 연속 '순류입', 장춘은 무엇으로 인재를 끌어들이는가?

“고향이 이렇게 실질적인 우대 정책으로 우리 졸업생들의 귀가를 환영할 줄은 생각 못했다.”

장춘시 남관구에 있는 청년인재 커뮤니티에서 밝고 깨끗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대련리공대학 석사졸업생 장모는 감개무량해 자신의 취직 새생활을 동경한다.

사평시 출신인 장모는 최근 장춘의 한 회사에서 실습 기회를 얻었다. 일 자리를 구하는 일은 료곡이 잡혔지만 어디에 행장을 풀지가 걱정이었는데 회사 인사부문의 안내대로 장춘시의 인재아파트에 자문했더니 뜻밖에도 그녀가 걱정하는 일은 정부에서 언젠 배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장모는 취직 회사와 계약한 후 인재아파트에 세를 수 있는데 계약 기한이 3년 이내면 시장 가격의 70% 표준으로 집세를 우대받는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집세를 10% 우대받을 수 있다.

동북 진흥에 있어서 인재사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동지를 틀어 봉황을 끌어들이는’ 인재유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년간 장춘은 개혁을 통하여 동력과 방법을 찾고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았다.

2022년, 장춘시는 인재봉사국을

설립하고 부동한 차원의 인재 유치, 양성, 류용 전 과정 봉사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인재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를 전문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각지에서 보기 드문바 이는 장춘이 인재를 갈망하고 인재를 급처럼 아낀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장춘시인재서비스국 정책연구실 주임 전박위는 인재서비스국은 기업, 대학교와 인재 수요를 한층 더 연결시켜 더욱 개성적이고 목적성 있는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표한다.

바로 전문적인 인재서비스기구가 있었기에 내용이 풍부하고 광범위한 장춘의 새로운 인재정책이 실제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청년인재에 대한 진심어린 보살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장춘은 장춘으로 오고 장춘에 남는 졸업생에게 세집 임대료 우대뿐만 아니라 길어서 24개월, 매달 1,000원 이상의 임대료, 생활보조금도 제공한다.

이 밖에 졸업 5년내에 첫 주택 구

매 시 박사졸업생한테는 8만원, 석사 졸업생한테는 5만원, 본과졸업생한테는 3만원 되는 1회성 주택구매 보조금을 준다. 실질적인 지원은 청년 인재들로 하여금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차원 인재에 대한 진심어린 존중

장춘에서 고차원 인재들은 교통 출행, 교육료, 관광지 유람 등 다방면의 ‘육색통로’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으며 가정을 안정시키는 면에서도 상응한 보조정책을 향수한다.

장춘시는 전문적으로 고차원인재전문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전략과 학자’로 인정된 인재 배치 서비스 전문반에 대해 매년 일정한 사업경비를 지원하고 ‘잠재력 과학자’로 인정된 인재에 상응한 봉사 보조원을 배치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관련 보조금이 따른다.

일련의 인재정책을 통해 장춘은 인재유치 흡인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인재 면에서 장춘은 이미 연속 4년간 해마다 대학졸업생 등 청년군체를 10만명 이상 유치했

다. 고차원 인재 면에서 장춘에 입고 된 인재는 이미 2,252명에 달한다. 통계에 따르면 장춘은 이미 연속 6년간 인재의 ‘순류입’을 실현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인재발전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개방적이며 더욱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기했다. 이는 장춘이 진일보의 개혁을 통해 체제와 기제의 장벽을 타파하고 정부, 산업, 학교, 연구기구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인재집결’ 행동을 실시하는 데 방향을 가리켜주었다. “우리는 플랫폼 담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며 인재 유치, 육성 경로를 최적화하고 격려 보장을 심화하며 인재를 위한 봉사를 더 잘하고 사람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생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다.”라고 전박위는 말했다.

‘김림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영재’가 장춘에 모이면서 장춘이라는 비옥한 인재의 ‘흑토지’에서는 한창 취업과 창업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으며 인재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 신화사

화웨이, 세계 최초 화면 두번 접는 휴대폰 발표



화웨이기술유한회사는 10일 광둥성 심수시에서 세계 최초의 트리폴드폰(화면을 두번 접는 폴더블폰)인 ‘메이트 XT’를 발표했다.

발표식에서 화웨이기술유한회사 상무리사이며 중단 BG 리사장인 여승동은 트리폴드폰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지(铨铨)와 디스플레이의 혁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정밀 한지 시스템은 안과 밖으로 두번 접히는 기능과 더블레이(双轨联动)을 실현했다. 화면은 10.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압출 방지와 신장 방지 두가지 기능을 구비했다.

이 밖에 화웨이는 또 폴더블폰의 생태 표준과 규범 보급을 추진하고 글로벌 개발자와 깊이있는 협력을

전개하여 폴더블 응용 생태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번영하고 건전한 대형 스크린 응용 생태를 구축하는 데 진력했다.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최근 수년간 폴더블 기술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한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등 분야에서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폴더블폰 시장 출하량은 약 700만 7,000대로 전년 대비 114.5%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첫 제품 출시 이후 중국 폴더블폰 시장은 4년 연속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신화사

천진과 일본 조선족 기업가들 친목 다진다



교류회에 참석한 쌍방 조선족 기업인들, 좌로부터 김중선, 리세명, 전재일, 김택원, 심재관, 리태운, 리룡식, 김인길, 리귀남, 서영호, 홍동연.

천진조선족련의회와 전일본조선족련합회의 교류의 장으로 9월 6일, 천진 조선족 기업인 및 재일본 조선족 대표 기업인 11명이 천진시 하서구 중해빌딩 4층 회의실에서 교류회를 진행, 천진과 일본 조선족 사회와 기업의 발전 상황을 뜻깊게 교류했다.

교류회는 천진조선족련의회당지부 서기 리태운의 사회하에 진행되었다.

교류회에 참석한 천진의 조선족 기업인들은 청송의약그룹 리사장 겸 천진조선족련의회 회장 심재관, 천진운림기전공정주식유한회사 리사장 겸 천진조선족기업협회 명예 회장 리세명, 천진볼테크기전유한회

사 리사장 겸 중국조선족공협회 회장 김중선, 천진육양현대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겸 천진조선족련의회 상무리사 김택원, 천진장방다차원정보기술유한회사 리사장 리귀남, 천진조선족민속촌 석류예술단 단장 전재일이다.

전일본조선족련합회측에서는 일본 Asian Express Co(아스타라이브) 회사 사장 리룡식, 일본 T&C 주식회사 사장 김인길 등 3명 기업인 대표가 교류회에 참석했다.

교류회에서 심재관 회장이 천진조선족련의회 설립, 조직 구성, 발전 내역 및 련의회 산하의 기업, 교육, 로인, 녀성, 체육, 예술단, 민속촌, 진달래장학금, 무청구 등 여러 분야의

역할과 활약 상황을 소개했다.

전일본조선족련합회의 창립 성원이며 자문단 고문인 리룡식 사장이 련합회의 설립, 단체 규모, 조직 구성, 일본 내지 전세계 조선족사회를 위해 진행한 각종 대형 활동 상황을 소개했다.

쌍방 단체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료해를 깊이하고 귀감을 새기며 친목을 돈독히 했다.

교류회의 일환으로 쌍방 기업인들의 좌담 교류가 이어졌다.

일본 조선족을 대표하는 유명한 기업인 김인길 사장이 창업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고향이 훈춘시, 료녕 부신공업학원을 졸업하고 1999년에 일본에 류학가서 IT 학을 전공하고 일

본 도시바그룹에 취직했다가 2009년에 직장생활을 접고 개인 창업을 시작했다. 회사에서부터 IT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영 지식을 쌓은 그는 10여년간의 고심한 연구로 일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수요되는 IT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수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천진측에서는 천진의 기업인 대표인 청송의약그룹 리사장 심재관 등 기업인들이 각종 곤란을 무릅쓰고 소속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경험을 소개했다.

교류회는 오후 일정으로 천진의 조선족 첨단기술기업인 육양현대과학기술유한회사를 방문했다.

육양현대과학기술유한회사는 세계적인 난방 첨단기술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하이테크 회사이다. 조선족 운동의 전통적인 난방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 회사의 고분자 나노 흑연 탄소봉 발열레이(高分子纳米石墨棒发热剂) 바닥 난방 제품은 고분자 나노 흑연 탄소봉을 소재로 특이한 기술을 리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훌륭한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은 8개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았고 중국 각지, 로씨야, 중아시아, 한국 등 국내외로 대량 판매되고 있다. 회사는 국가와 여러 성으로부터 ‘고신기술기업’, ‘친환경공헌기업’, ‘과학기술혁신기업’ 등 10개 영예칭호와 인정서를 취득했다.

육양현대과학기술유한회사의 소개와 현지 고찰에서 일본 기업가들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이 제품의 난방 효율과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에서의 큰 시장성을 예측하면서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비유했다.

/ 리태운, 리영호

월병 새 규정 :

‘광동식 땅콩소 월병’ 반드시 이 5 가지 건과류 들어가야

추석맞이 월병제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4월 1일부터 실시된 소판 <월병품질통치> 국가 기준이 체현됨을 류의할 필요가 있다. 통칙은 월병의 제작, 명명 등에 대해 보다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레를 들면 련랍소(莲蓉) 월병 또는 대추소 월병은 조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기름, 설탕, 물 등 재료와 식품첨가제를 제외하고 련랍(또는 대추) 첨가량이 총 중량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과일류 종류의 월병소중 과일(또는 과일맛 첨가제로 제작한 월병은 ‘XX 맛 월병’이라고 해야지 과일 이름을 앞세워 ‘XX 월병’이라고 해서 안된다.

상가 선택 신중히

월병 구매 시 허가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한 경영주체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해도 해당 허가서류, 제품 홍보 및 서비스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정규적인 쇼핑몰, 슈퍼마켓 또는 신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판촉 행사에 이끌리지 말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월병을 맹목적으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 브랜드 월병 구매 시에도 공장 및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브랜드를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월병 이름의 함의 분간하기

통칙에 따르면 ‘광동식 땅콩소 월병’은 호두, 아몬드, 올리브씨, 해바라기씨, 참깨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건과류로 그중 한가지 혹은 몇가지를 대체할 경우 ‘광동식 건과류 월병’ 혹은 ‘땅콩소 월병’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5 가지 건과류를 초과한다면 ‘건과류 월병’ 혹은 ‘6 가지 건과류 월병’, ‘7 가지 건과류 월병’이라고 해야 한다.

통칙은 또한 전보다 월병 겉 원료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상품 라벨 자세히 확인하기

월병을 구매할 때 포장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바 손상, 팽창, 공기가 새는 등 현상이 없어야 하며 제품 라벨에 제품명, 제조업체 및 주소, 생산일자, 유통기한, 성분, 보관조건, 식품생산허가번호 등 정보가 표시돼있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물질 정보, 적절한 섭취량 및 부적합한 군체 등에 대한 알람정보에도 주의해야 한다.

/ 인민넷

우리 나라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 11월부터 ‘제로’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당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9월 8일 <외상투자 진입 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 2024년 11월 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제한 조치는 31개 조목에서 29개 조목으로 줄었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제로’를 실현한다. <외상투자 접근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는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실시하는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확고부동하게 투자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글로벌 개방 협력을 추진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무부 등 부문, 각 지역과 함께 진입 허가 전 국민 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잘 실행하여 새로운 개방 조치에 제때에 정착되도록 보장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민 대우를 한다. 이와 동시에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위험 예방통제 사업을 착실하게 잘한다.

/ 신화사



교류회사 창업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일본 T&C 주식회사 사장 김인길



육양현대과학기술유한회사 김택원 리사장(오른쪽 두번째)이 흑연 탄소봉 발열레이 작동 원리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